

고려 시대 음악

918~1392년

고려 시대의 악곡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051

고려 시대에는 통일 신라의 전통을 계승하여 연등회, 팔관회 등을 국가적 불교 행사로 발전시켰다. 중국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여 아악과 당악이 유입되고 고려의 향악과 함께 다양한 음악 문화를 형성하였다. 현재에도 연주되는 아악곡으로는 「문묘제례악」이 있으며, 당악곡으로는 ‘낙양춘’과 ‘보허자’가 있다.



팔관회



연등회

문묘제례악



001

「문묘제례악」은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이다. 아악기 편성 연주에 기악의 악(樂), 노래의 가(歌), 춤의 무(舞)가 더해진 형태이다.

1 「문묘제례악」 중 ‘황종궁’을 감상해 보자.

黃 南 林 如 太 姑 南 林 應 南 蕤 姑 南 林 黃 太
 황 남 임 고 태 고 남 임 응 남 유 고 남 임 황 태

• 노랫말의 한 음절을 하나의 음으로 표현하는 1음 1자로 구성되어 각 음의 길이가 같고, 끝부분을 올려서 표현한다.



문묘제례악



공자와 유학의 성현